

소상공인 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도내용>

- 2024. 6. 26. 머니투데이는 「[단독]‘회전문 창업’에 제동...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문턱 낮춘다」, 「카페 폐업 뒤 또 카페 또 카페 창업...자영업 굴레 갇혀 불어난 빚 1000조」기사에서 각각
 - “정부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특별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 중략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해 새출발기금 규모를 확대한다. ... 중략 ...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주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담는다.”
 - “정부는 7월 초에 발표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에 새출발기금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정부는 현재 다음달 발표를 목표로 소상공인 대책을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215-4530)
		담당자	사무관	황현 myhyun11@korea.kr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책임자	과 장	김현익 (044-215-2750)
		담당자	사무관	이은우 felizlew@korea.kr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책임자	과 장	정종식 (044-2100-2920)
		담당자	사무관	문성배 sungbae1107@korea.kr